

‘삐뚤삐뚤’ 운영 서울디자인재단

사업자 선정·재산임대 등 부적정 업무처리 8건 적발 “서울시 행정 신뢰도 저하”

서울디자인재단이 봉제교육 운영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와 공유재산 임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디자인재단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운영 감사에서 주의·개선이 필요한 사례 총 8건을 적발해 행정 및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감사 결과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은 봉제교육 제안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를 평가에 참가시켜 1순위로 선정 후 나중에 잘못을 바로잡아 해당 업체를 실격시키는 등 행정 신뢰를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이 봉제교육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해 2019년 2월 7일 공고한 용역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제안서는 8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A4규격 용지에 흰(가로)으로 작성해야 한다.

규격을 엄수하지 않으면 평가불가로 돼 있다.

감사위는 “재단은 공고문 및 제안요

청서에 규정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제안서를 A4규격 용지에 흰(가로)으로 작성하지 않고 종(세로)으로 제출하는 등 공고에 명시한 규격을 지키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단은 당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A기업이 종(세로)으로 작성된 제안서를 넣음에도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여부를 물어 결정키로 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 잘못된 규격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A기업이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재단은 “제안서는 흰(가로)으로 작성하며 규격 미입수시 평가 불가”로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련해 자문변호사 등 3곳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들 모두 제안요청서에 따라 평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재단은 A기업을 실격시키고 평가 2위 업체인 B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협상을 통해 작년 4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위는 “재단의 부적정한 업체 선정 절차 추진으로 재단과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업무관련자 3명을 신분상 조치토록 했다.

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임대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재단이 지난 2017년 공고한 DDP 복합문화공간 운영 위·수탁 사업은 지방계약법 제13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재단은 당해 입찰을 공고하면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또 재단은 계약상대자인 C기업이 목적물을 계약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위반 사항이 있을 시 변상금 부과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작년 9월 공공공간에 대한 이용을 금한다는 공문을 C기업에 발송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꼬집었다.

재단은 향후 계약 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을 준수하고 계약공간과 공공공간 구분은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하게 산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사립고 교사 채용시험 공립 임용시험과 연계

서울시교육청 위탁 시행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내년 사립학교 신규교사 임용 1차 시험을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과 연계해 위탁시험 한다고 7일 밝혔다.

사립학교 교사는 학교법인에 선발 권한이 있지만 교사채용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교육청이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지난 2012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법인의 위탁참여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1학년도에는 30개 법인이 교사 선발을 위탁했다. 이중 12개 법인은 처음으로 위탁 선발에 참여한다.

총 48개교에서 ▲초등교사 3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2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128명 등 139명을 선발한다.

과목으로는 초등·특수유치원·특수초등·중등 25개 과목 등 총 28개 과목이

다. 지난해와 달리 이번 1차 선발시험에서는 공·사립 학교에 동시 지원하지 않고 사립학교만 지원한 수험생을 우선 합격시킬 예정이다. 기존 선발인원 3~7배수였던 선발 배수는 3~5배수로 축소한다.

위탁선발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차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달 9일(초등)과 내달 8일(중등)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2021학년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와 해당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효선 서울시교육청 교원임용관리팀 과장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 위탁선발을 통해 사립학교의 우수 교원 확보와 교원 선발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더 많은 학교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



스타필드 안성 조감도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 안성, 내달 7일 그랜드 오픈

고객 안전 위해 추석 이후 개점 경기남부 최대 쇼핑 테마파크

경기남부 최대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안성이 오는 10월 7일 그랜드 오픈한다.

스타필드를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고객 안전을 위해 스타필드 안성 그랜드 오픈을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7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는 하남, 코엑스몰,

고양에 이어 3년 만에 선보이는 스타필드 안성 개점에 주력해왔다. 당초 추석 연휴 이전에 오픈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고객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판단해 추석 연휴 이후 개점키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하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달 25일 먼저 만나볼 수 있다. 트레이더스 분산 오픈을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둔 고객들의 추석 준비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랜드 오픈 당일 혼잡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서울시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시민 개인정보 안전하게 보호·관리

서울시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ISMS-P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터넷진흥원이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ISMS-P 인증범위는 대표 홈페이지와 생활복지 통합정보, 법인 시설관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3개 웹사이트다. 시민 개인정보를 20만명 이상 보유하고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위험성이 큰 웹사이트가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는 46만6277명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등 회원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복지대상자 및 보호대상자 75만 4000명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법인시설 관리시스템은 노숙인 관련법,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노숙인관리정보, 사회복지 법인시설 관리정보, 시스템 사용자 정보 등 26만8416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개인정보를 5만명 이상 보유하고 1일 방문객 1000명 이상인 웹사이트 6개를 내년까지 추가로 인증받을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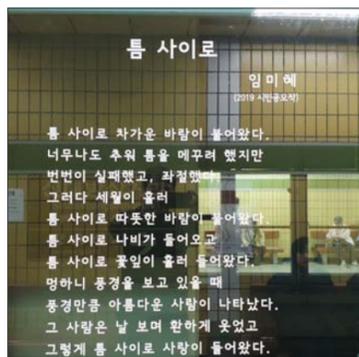
“지하철 승강장서 시민작가 시 읽어보세요”

서울시, 시민 창작 시 208편 게시

서울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시민 창작 시(詩)’ 208편을 선정해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게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를 지난 2011년부터 시민에게 선보여왔다. 올해는 지난 6월 공고를 시작해 총 3140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문학평론가,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208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접수 건수는 지난해 2152편 대비 988편 증가한 3140편이었다. 의료진을 응원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작품도 많았다고 시는 덧붙였다.



현재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에 게시된 시.

최종 선정작 208편은 오는 10월부터 지하철 1~9호선, 분당선 총 314개역 승강장 안전문 4093면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명 시인의 시 107편과 함께 2년 동안 게시된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음식점 1400곳 합동점검

고양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지난 6일 시청과 구청 위생부서 및 3개 경찰서가 합동으로 20개 반 5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시는 주간에는 이번 강화조치에 추가된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형 음식점 310여 곳에 강화된 방역조치 사항을 안내했으며, 면적 150㎡ 이상 대형 개인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는 자발적인 테이크아웃 형태의 영업을 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야간에는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준수여부를 확인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8 | 해질 / 18:51

9월 8일 (화) 음력 : 7월 21일

수도권 날씨 25 ~ 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백령도 20/23, 파주 18/25, 인천 21/25, 수원 21/25, 평택 19/27, 서울 20/25, 양평 18/26, 용인 21/25, 연천 18/25, 동두천 18/25, 가평 18/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